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직장인 식대 비과세 늘어날 듯

21일 새정부 첫 세법개정 발표

법인세 최고세율 25%→22%

퇴직금·소득세 과표 개편 검토

정부는 오는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안도 이달 내 발표를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직전 문재인 정부 당시

22%에서 25%로 올라갔는데, 이를 5년 만에 원상 복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4단계로 나뉘어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3개 이하로 줄이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함께 낮춘다.

대표적인 ‘페널티 과세’로 거론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도 폐지한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임금 증가·상생 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인데, 실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기업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 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한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세대교체도 지원한다.

국민 부담이 큰 부동산 세제는 조세 원칙에 맞게 ‘정상화’한다.

우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중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이사나 상속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주택 가격을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하되, 1주택자로서 받는 세금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은 퇴직소득공제 개편을 통해 축소한다.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상향해 근속 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산층 직장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 관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19년째 고정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함께 확대될 전망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민약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당장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사실상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로, 최근 물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합뉴스



KT전남전북법인본부는 ㈜세오와 AI, 클라우드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수자원 관리 시스템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 제공

KT-(주)세오 수자원 관리 시스템 개발 업무협약

수위·유량·기상정보 수집예측

사전 정보 알림·수문제어 지원

KT전남전북법인본부가 ㈜세오와 AI, 클라우드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수자원 관리 시스템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2일 KT전남전북법인본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하는 시스템은 현장 수위와 유량 및 기상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사전 경보 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수문제어 등 신속한 의사결정도 지원한다.

㈜세오 이형각 대표는 “현재 개발중인 원격 단말장치(RTU) 기술은 기상청 등 유관 기관의 정보와 현장 계측 정보를 실시간 비교·분석

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KT전남전북법인본부 류평 상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물관리 자동화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한 인공지능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수자원 낭비를 제거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첨단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까지 노릴 수 있는 훌륭한 상생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미 경기둔화에 광주·전남 6월 주식시장 침체

전월 대비 거래량 15.4%↓

시총 1조 1,470억 원 감소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41년만에 8.6%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상 우려 및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광주·전남의 주식 거래량과 거래대금, 시가총액 모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분석한 ‘2022 6월 광주·전남 지역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주식 거래량은 6억 8,761만주로 전월 8억 935만주 대비 15.4% 감소했다. 거래대금 또한 5조 7,166억 원으로 전월 6조 4,695억 원보다 11.64% 감소하면서 7,529억 원 하락했다.

이와 같은 감소세는 시가총액에서도 드러났다. 코스피 시장은 8,806억원으로 4.25% 하락

했으며, 코스닥 시장 또한 2,664억 원으로 9.52%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월대비 총 1조 1,470억 원, 4.88% 하락했다.

주요 종목별 시총으로는 코스피 시장에서 우리금융 (6.17%, 463억 원), 금호에이치티 (4.87%, 129억 원), 한전KPS(2.26%, 382억 원)가 증가했고 부국철강(-24.82%, -236억 원), 다스코(-21.71%, -294억 원), 대우에이텍(-21.33%, -258억 원) 등은 감소했다.

코스닥에서는 서암기계공업(17.20%, 148억 원)이 증가했고 우리손에프앤지(-25.84%, -477억 원), 위니아(-24.75%, -356억 원), 우리로(-23.81%, -152억 원) 등 대다수가 감소세를 보였다.

전국 대비 광주·전남 지역 투자자들의 거래량 비중도 0.82%로 전월 대비 0.04%p, 거래대금도 0.72%로 0.06%p감소했다. /오지현 기자

중진공, K-에비유니콘 후보기업 4곳 선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이하 중진공)는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지역 대표 K-에비유니콘을 육성하기 위해 후보기업 4개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K-에비유니콘은 기업가치나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에서 1조원 미만인 기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정부 전략산업 및 지역주력 산업을 영위하는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역 대표 K-에비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자금, 투자, 수출, 인력 등을 집중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진공 광주본부는 올해 대화물세라믹스 제조기업 ▲㈜와이제이씨(대표이사 배지수), 환경관련 정소차량 제조기업 ▲㈜에이엠특장(대

표이사 윤홍식), 광학 레이저부품 제조기업 ▲㈜옵토닉스, 포장중개 플랫폼기업 ▲㈜리우(대표이사 김대건)을 지역형 K-에비유니콘 후보기업으로 선정했다.

중진공 광주본부는 이번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유관기관 및 창업투자사와 함께 투자 유치, 역량 강화, 홍보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민간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홍주 광주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발맞춰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K-에비유니콘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술력과 성장성을 겸비한 유망 중소기업들이 지역 대표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광주주먹밥 만들기 체험하세요”

디자인진흥원, 오는 11월까지

광주시와 (재)광주디자인진흥원이 지난 6월부터 ‘광주주먹밥체험관’을 운영 중이다. 12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체험관은 전일빌딩245 내 마련된 ‘광주주먹밥 체험

관’에서 오는 11월까지 매주 금·토 오전 11시, 오후 2시에 두 차례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전문 요리 강사를 초청해 ‘광주주먹밥 유래 해설’, 육전 주먹밥 등 주제로 다양한 종류의 밀키트를 활용해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체험객은 각자 만든 광주 주먹밥을 포장해 가져갈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체험을 희망하는 시민이나 방문객은 광주 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유아교육 시설이나 여행객 등 단체 이용 희망자는 운영사무국(062-945-5670)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홍승현 기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